

한국어 속담 전자 사전 활용 연구¹
-중국어 화자 대상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朴炳善, 陳慶智, 蔡連康(臺灣 國立政治大學)

1. 서론

언어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가 목표어를 사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다.² 그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목표어가 모국어로 사용되는 사회의 문화적 속달이 반드시 필요하다. 언어 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기능 수행이라고 볼 때 언어와 문화는 통합해 교육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도 한국어의 진정한 이해와 적절한 사용을 위해서는 한국 문화 교육이 꼭 필요하다. 문화 교육의 영역에는 경어법, 호칭, 비언어적 표현과 더불어 관용어와 속담도 포함된다. 이 중에서 속담은 문화 교육의 중요한 자료로 인식되어 이에 대한 연구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국어 화자들에게 있어서는 유사한 전통 문화 배경을 바탕으로 속담을 통한 한국 문화 교육에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한국 문화 교육의 일환으로 한국 속담 교육이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폭넓게 인식되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³ 그런데 앞서 언급한 문화 교육 영역 중에서 관용어와 속담 부분은 전자사전으로 구축되고 있다. 정보화 시대를 맞아 한국 국립국어원에서 시행하는 세종계획의 주요 분야 중에 전자사전 개발 분과에서 속담사전을 구축하였다. 이 연구는 언어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기술된 자료를 전산학적 관점의 연구와 효율적으로 접목시킴으로써 정보 검색, 텍스트의 분석과 산출, 자동번역, 다국어 사전 구축, 인쇄 사전 구축 또는 한국어 교육이나 순수연구 등에 두루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고는 전자사전으로 구축된 한국어 속담 정보를 문화교육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특히 중국어 화자 대상 한국어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 구축에 필요한 중국어 대역 정보 구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어 속담 전자 사전의 구조를 소개하고 기술 내용과 그 특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 속담의 중국어 대역 표현의 유형과 그 정보 기술 부분을 전자사전에 탑재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간다.

2. 한국어 전자사전의 기술 구조

¹ 이 논문은 박병선 외(2007)을 심화 확대 발전시킨 것이다.

² 김정숙(1993)에서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³ 최근 속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어 화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분야 연구에도 祝翠瑛(2006) 등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

2.1 사전 구조

우선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 중인 '속담 사전'의 기술 구조를 소개한다.

```

<idmDic>
<superEntry>                                최상위 표제어
<orth></orth>                                표제어 표기정보
<entry n="1">                                표제어
  <mnt_grp>                                  관리 정보 그룹
    <dic>관용표현사전</dic>                  사전 이름
    <cre>                                      최초작성정보구획
      <cre_date></cre_date>                  최초작성일
      <cre_writer></cre_writer>            최초작성자
      <cre_note />                          최초작성메모
    </cre>
    <mod>                                      수정정보구획
      <mod_date></mod_date>                수정일
      <mod_writer></mod_writer>            수정자
      <mod_note></mod_note>                수정메모
    </mod>
  </mnt_grp>
  <head_grp>                                  표제어 정보그룹
    <org></org>                              어원 정보
    <idm_type type="temp"></idm_type>        관용표현 유형 정보
    <see></see>                              참조
    <head_note></head_note>                  표제어정보 메모
  </head_grp>
  <morph_grp>                                 구성정보그룹
    <idm_str></idm_str>                       관용표현 내부구조
    <idm_str_dis></idm_str_dis>              관용표현 내부구조 분포 정보
    <var type="emph"></var>                  강조형 정보
    <var type="vulg"></var>                  비속어형 정보
    <var type="abb"></var>                  준말형 정보
    <var type="hon"></var>                  존대어형 정보
    <var type="JK_drop" JK="0" drop="temp"></var> 격조사 생략 정보
    <var type="JK_var" JK="all" vari="temp"></var> 조사 변이 정보
    <var type="etc"></var>                  기타 변이 정보
  </morph_grp>
  <sense n="1">                              의미 갈래

```

<sem_grp>	의미정보그룹
<trans></trans>	(영어) 대역 표현
<domain></domain>	의미 영역(전문 분야)
<reg></reg>	레지스터
<con></con>	내포적 의미
<intention></intention>	의도적 의미
<lr type="syn"></lr>	동의적 표현
<lr type="ant"></lr>	반의적 표현
<lr type="rel"></lr>	기타 관련 표현
<lr type="proverb"></lr>	관련 속담 표현
</sem_grp>	
<syn_grp>	통사정보그룹
<synt_a>	통사정보 A 구획
<frame n="1">	통사적 구성의 갈래
<case_frame type="yes"></case_frame>	문형 정보
<syn_sem n="1">	통사-의미관계
<sel_rst></sel_rst>	선택 제약
<tht_rol></tht_rol>	논항 구조
<eg></eg>	예문
<ss_note></ss_note>	메모
</syn_sem>	
</frame>	
</synt_a>	
<synt_b>	통사정보 B 구획
<s_mod type="temp"/>	문장의 유형
<add_v_end type="ida"/>	‘이다/하다’ 결합 가능성
<s_var></s_var>	통사적 변이형 정보
<c_md></c_md>	수식어 제약
<v_rst type="rest"></v_rst>	용언의 시제, 상, 서법의 제약
<v_end_rst type="temp"></v_end_rst>	용언의 어말 어미 제약
<syn_rel>	통사적 관계
<pas_str exist="temp"></pas_str>	피동사 대응
<pas_l_str exist="temp"></pas_l_str>	장형피동사 대응
<act_str exist="temp"></act_str>	능동사 대응
<caus_str exist="temp"></caus_str>	사동사 대응
<caus_l_str exist="temp"></caus_l_str>	장형사동사 대응
<uncaus_str exist="temp"></uncaus_str>	주동사 대응
<int_str exist="temp"></int_str>	자동사 대응

```

<tra_str exist="temp"></tra_str> 타동사 대응
<gr_info type="res" exist="temp"></gr_info>재구조화
<gr_info type="rel" exist="temp"></gr_info> 관계화
<gr_info type="clf" exist="temp"></gr_info> 분열문
<gr_info type="imp" exist="temp"></gr_info>명령문
</syn_rel>
</synt_b>
</syn_grp>
</sense>
</entry>
</superEntry>
</idmDic>

```

여기서 나타난 구조를 보면 전자사전의 내용에 표제 항목과 관련된 다양한 언어학적 정보가 포함된다. 위에서 의미 갈래 정보의 하위 정보에 대역 정보 부분이 나오는데, 현재는 영어 대역 정보를 중심으로 간단한 번역문을 제시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에 중국어 번역 부분을 효율적으로 탑재한다면 중국어 화자의 한국어 학습에 있어서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한국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와 관련된 기대 효과를 밝혀 보고자 한다.

2.2 세종전자사전 활용의 필요성

기존 전자사전은 대부분 단순 검색 기능만을 갖추고 있으며 그 내용도 기존의 인쇄 사전에 수록된 정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기계처리를 위한 사전인 경우에도 한정된 분야의 어휘나 기능에 국한되어 있고 정보 내용도 정밀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기존의 연구 성과들은 그것이 즉각적으로 활용될 만큼 충분히 범용적인지 호환성이 있는 것인지조차도 불확실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세종전자사전은 한국어 전산처리의 활용성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하위 모듈이 통합된 형태로 구성된다. 즉 기본적인 문법범주와 형태정보만이 부착된 대규모 (확장)기초전자사전과 상세한 어휘 정보가 부착된 상세전자사전으로 분리되어 개발되었다. 각 전자사전은 다시 문법범주에 따라 별도의 사전으로 개발되고, 최종적으로 이들이 통합되어 전체 세종 전자사전을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세종전자사전은 그 모듈적 구성으로 인해 특정 모듈에 대해 언제라도 부분적인 보완 및 개선 작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개발될 인공지능 또는 여러 새로운 전산기술에 입각한 언어처리 시스템에도 손쉽게 적용, 활용될 수 있는 기술적 유연성을 갖는다.

3. 한국어 속담의 중국어 대역 양상

한국어 속담에 대한 중국어 대역 정보의 특징은 중국어 표현의 다양성에 있다. 한국어 속담과 중국어 대역 표현들은 수천년에 걸친 문화적 유대 관계의 결과로서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그런데 중국어 대역 표현 양상의 다양성은 중국어 화자들에게 한국어 속담을 학습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방해가 되기도 한다. 특히 중국어의 영향을 받은 한국어 속담 중에는 원래 중국어에서의 쓰임과는 달리 변용되거나 와전된 것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가 진경지(2002)에서 비교적 자세히 이루어졌다.

3.1. 중국어 대역 표현의 종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의 속담을 중국어로 표현할 때에 중국어의 어떤 표현이 가장 적절한지 그 유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어에도 한국어와 같이 속담이 있다. 그렇지만 한국어 속담의 중국어 대역 표현에는 중국 속담뿐만 아니라 여러 속어 표현이 필요하다. 이런 속어표현에 대한 정의 자체가 아직 학계에서 분명하게 정리되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본고에서는 중국 속담과 기타 속어 표현에 대한 특징을 간단히 비교 설명함으로써, 한국어 속담 표현의 중국어 대역 표현이 다양할 수 있음을 간단히 설명해 보겠다.

1) 성어: 『辭海』에서는 성어를 “속어의 한 종류이다. 상용적이고 고정된 단어 조합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설명을 추가하고 있다. “중국어에서 성어는 대부분 4 글자로 구성되어 있고 조직이 다양하고 기원이 여러 가지다. 어떤 성어는 그 축자적 의미로만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萬紫千紅’, ‘乘風破浪’ 등이 있다. 반면에 어떤 성어는 기원을 알아야만 그 뜻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患得患失’은 『論語. 陽貨』에서 나타나고 ‘守株待兔’은 『韓非子. 五蠹』에서 나타난다”라고 설명이 나온다.⁴ 성어는 속어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고정된 구조가 필수 조건이다. 그리고 속담에 비해 성어는 글자의 변동이 어렵다. 글자수로 보면 속담은 다언, 잡언으로 출현할 수 있는데 성어는 대부분 4 글자로 구성된 격식문이다. 문체로 보면 성어는 문어체가 강하고 문자사용이 우아한 데 비해 속담은 구어체에 가깝고 표현이 통속적이다. 그리고 성어는 문헌으로 전해왔기 때문에 그 작자와 전고를 대부분 찾아낼 수 있는 반면에 속담은 구전되는 특성으로 인해 그 기원을 밝히기가 어렵다.

2) 관용어: 관용어도 속어의 한 종류로 본다. 『辭海』에서는 아직도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편적으로 학자들에 의해 속어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관용어란 ‘구두선’과 같이 생활 속에 자주 쓰는 짧고 고정된 말을 지칭한다.

4 本文對於各熟語成員之基本定義參考上海辭海出版社出版之『辭海』(1999.09), 以下將不再做特別標示。

이는 대부분 3 글자로 되어 있고 표현하려는 뜻이 명확하며 구어성이 강하다. 예를 들면 ‘賣關子’, ‘戴高帽’ 등이 있다. 관용어와 속담은 모두 구어성이 강한 고정된 단어들의 조합이지만 형식면에서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관용어는 3 글자라는 격식을 갖추고 있으며, 관용어가 갖는 목적어와 서술어로만 된 구조는 속담에서 흔히 볼 수 없다. 내용면에서도 관용어는 속담처럼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는 기능이 없다.

3) 혈후어: 『辭海』에서는 “숙어의 한 종류이다. 널리 알려진 익살스러운 어구이다. 사용할 때 후구를 숨길 수 있고 전구로만 뜻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圍棋盤裡下象棋(바둑판에 장기를 둔다)’는 ‘방법에 맞지 않는다(不對路數)’란 뜻이다. 전구와 후구를 같이 제시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芝麻開花(깨나무 꽃이 핀다)—節節高(갈수록 높아진다)’이다”라고 정의한다. 혈후어의 이런 특수한 표현방식은 속담과의 차별성이 높으며 내용면에서는 속담보다 더 익살스럽고 해학적인 것이 특징이다.

4) 격언: 격언은 『辭海』에서 “숙어의 한 종류이다. 모범으로 삼을 만한 간단한 어구이다. 예를 들면 ‘滿招損, 謙受益’”라고 설명하고 있다. 격언은 성어와 같이 대부분 문헌에 기재되어서 속담보다 문체의 품격이 높으며 그 작자와 출처 또한 찾아낼 수 있다. 내용면에서 보면 격언은 산문의 격식으로 개인적인 식견을 논술하고 민중을 교화시키는 것이 많다. 글자수를 보면 속담보다 긴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論語』에서 子夏가 한 “日知其所亡, 月無忘其所能, 可謂好學也已矣(날마다 모르는 바를 알고 달마다 할 수 있게 된 바를 잊지 않는다면 가히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자주 생활 격언으로 사용된다.

3.2. 중국어 표현과의 상관 양상

앞 절에서 제시한 중국 속담 및 다양한 숙어 표현들은 한국어 속담의 중국어 대역 표현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하여 좀더 실제적인 문제로서 중국 속담 및 각종 숙어 표현과 한국 속담과의 상관관계의 특징도 고려해야만 한다.⁵⁾ 이 특징들은 바로 한국 속담 전자사전 자료에 정보를 탑재할 때 기술 항목을 설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관련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한국어 속담을 중국어로 대역할 때 중국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관련성의 양상을 간단히 예를 들어 보인 것이다.

1) 중국에서의 쓰임과 뜻에서 와전된 예

‘구렁이 제 몸 추듯’이라는 속담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다. 이 속담은 중국과 관련된 ‘屈原이 제 몸 추듯’이라는 속담에서 와전되었다고 생각된다. 굴원은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 사람으로 만년에 정치 생활이 불운하여 조정에서 쫓겨났다. 그 후에는 술을 벗하여 방랑 생활을 하면서 〈漁父詞〉같은 작품을 빌어 자신을 몰라주는 세상을

5 이와 관련된 상세한 논의는 진경지 외(2007)에서 대만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비웃고 자화자찬을 했다. ‘굴원이 제 몸 추듯’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 유래된 속담이다. 그러나 발음의 혼동(굴원이[gurwoni], 구렁이[gureongi])과 문화적 공감성(굴원보다 구렁이가 주변에서 더욱 흔히 보인다) 등의 이유로 한국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전수 과정에서 속담을 와전시켰다. 이러한 속담의 기원을 한국어 학습자에게 밝힐 수 있다면 문화적 이해와 학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중국에서의 표현과 비슷하지만 의미가 다른 예

‘鷄卵有骨(계란에도 뼈가 있다)’은 늘 일이 잘 안 되던 사람이 모처럼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그 일마저 안 되고 말았다는 뜻의 속담이다. 이 속담의 기원은 黃禧(1363~1452) 정승과 연관이 있다. 황희 정승은 매우 청렴하여 비록 재상 자리에 있어도 먹을 것이 자주 부족하니 왕은 어느 날 ‘남문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모두 주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마침 큰 비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없었고 저녁에야 계란 한 꾸러미가 들어왔다. 삶아서 먹으려 했더니 모두 껍데기만 있었다고 기록에서 전하고 있다. 사실 ‘계란유골’의 ‘유골’은 ‘뼈가 있다’가 아니고 이두식 표기로 봐야 정확한 뜻을 알 수 있다. 즉 ‘骨’은 동사인 ‘끓다’로 봐야 하고 ‘有骨’은 즉 ‘끓어 있다’, ‘끓었다’로 해석해야 한다. 후세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字面的 의미로 ‘계란에도 뼈가 있다’로 해석한 것이다.

이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의 한국어 학습자도 쉽게 실수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 사람이 ‘계란에도 뼈가 있다’라는 속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쉽게 중국의 속담인 ‘달걀 속에서 뼈를 찾다(鷄蛋裏挑骨頭)’와 연관해서 이해하는데, 이 속담은 ‘억지로 남의 흉을 들추어내다’라는 뜻으로 한국 속담의 내포 의미와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듯 중국어로의 대역 과정에서 속담의 변용, 그리고 와전을 밝힐 수 있다면 한국어 학습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으며 서로에 대한 문화적 이해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전자사전의 중국어 대역 정보를 기술할 때에 이러한 중국어 대역 표현의 다양성을 고려한 기술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활용할 경우 한국어 학습자는 물론이고 한국어의 중국어 대역 정보 자료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 정보는 기계 번역이나 정보 검색 등에도 고급 언어학적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다.

한국어 속담을 중국어 표현으로 바꿀 경우 중국어의 표현 형식과 내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어에서 관용표현의 어느 부분까지를 속담으로 정의하는지부터 따져 봐야 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앞으로의 연구에서도) 한국어에서의 속담에 대한 정의는 전적으로 세종계획 전자사전의 기준을 따르기로 한다. 이 기준을 따르면 대역 대상이 되는 한국어 속담은 중국어 대역 표현에 있어서 중국어에서 속담⁶, 성어(成語), 유사의미 표현⁷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정보도 모두 전자사전에 탑재할 필요가 있다.

6 중국어에서는 ‘俗語’, ‘俗言’, ‘俗論’ 등으로 나타낸다.(진경지, 2002)

7 동일한 의미의 대역어가 아니고 유사한 의미를 보이는 다양한 표현 양식을 말한다.

4. 중국어 대역 정보 탑재 방안

여기서는 앞서 언급한 한국어 속담의 중국어 대역 표현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한국어 전자사전 구축에 있어서 속담 자료의 중국어 대역 표현 기술 방법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국어의 대역 양상을 정리하여 기술할 항목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앞 절에서 언급한 중국어 대역 표현의 모든 양상을 반영한 기준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양상의 범주별 구조 설정도 필요하다.

우선 현재의 전자사전 기술 구조를 보면 의미 항목 하위에 대역 정보 구역이 하나만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구축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한국어 관용표현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영어 표현을 1-3 개 정도 제시한다. 대역 표현이 반드시 영어에서도 관용표현의 가치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역 표현이 여럿 있을 때에는 태그를 반복하여 제시한다.

(예) 표제어가 ‘머리가 돌다’일 경우:

<trans>be out of one's mind</trans>
<trans>be off one's head</trans>
<trans>be wrong in the head</trans>

즉 <trans></trans> 부분에 해당 한국어 속담의 전체 의미 대역 정보만 포함된다. 예를 들면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의 경우 <trans>Medicine good for your health is bitter to the mouth</trans>로 표현하는 것이다. 현재 전자사전 기술 구조를 보면 언어는 영어로 한정하고 있고, 해당 표제항목의 다양한 영어 의미 대역 표현을 단순히 반복하여 제시하고만 있다. 외국어를 영어로만 한정한다 할지라도,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의미의 번역과 더불어 영어의 유사표현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표현도 mark-up 표현⁸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어 전자사전의 유용한 정보를 다양한 외국어와의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대역 정보 기술 방식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중국어의 대역 정보 기술에 있어서는 해당 한국어 속담 표현의 중국어와의 관련성을 밝혀 기술 항목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발표에서는 간단한 예시를 통해 중국어 대역 정보 탑재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우선 영어 대역 표현의 지침과 마찬가지로 한국어 속담의 의미를 표현하는 중국어 설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해당 한국어 속담과 유사한 중국어 관용 표현이 있는 경우 해당 관용 표현의 유형별 기술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특별히 중국어에서 기원한 한국어 속담에 대한 기술의 경우 그 중국어 표현과 의미가 같은 경우와 변형 혹은 와전된 정보도

⁸ mark-up 표현은 세종계획 전자사전에서 정보 기술 방식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XML 방식을 뜻한다. 예를 들어 본문의 시작은 <text> 끝은 </text>으로 표시한다. 이런 방식은 최근 자료를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수월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포함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관련성을 보여 줄 뿐 아니라 한국어 학습자나 중국어 학습자에게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또한 이 정보는 검색이나 기계 번역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이다.

앞서 언급한 것들을 고려하여 전자사전에 탑재할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

<sem_grp>                의미정보그룹
<trans> 대역 표현 부분
  <eng></eng> 영어 대역 표현
  <chi> 중국어 대역 표현
    <main mean></main mean> 의미 설명 부분
    <origin type = "sok"></origin> 중국어 속담 관련
    <origin type = "phrase"></origin> 중국어 성어 관련
    <origin type = "analogy"></origin> 중국어 유사 표현
    <origin type = "change"></origin> 중국어 변형 표현
    <origin type = "ref"></origin> 중국어 와전 표현 등 기타 참조
  </chi>
</trans>

```

5. 연구의 의의와 전망

이번 발표에서는 한국어 전자사전의 속담 표제항 기술에 중국어 대역 정보를 탑재하는 내용에 대해 다루어 보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국어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21세기 세종계획의 전자사전 개발 분과의 ‘전자사전’에는 다양하고 유의한 언어학적 정보가 효율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특히 기계 처리에 적합한 전자 자료로서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다. 이 정보는 한국어 연구에서는 물론이고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그 효용성이 무척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기계번역 분야에서도 그 효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어 대역 부분의 기술(記述)에도 정보 처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유용한 정보의 탑재가 필수적이다.

한국어는 수 천년에 걸쳐 한자를 중심으로 중국어의 큰 영향을 받아 왔다. 이런 이유로 한국어 문화 교육 분야의 주요 부분인 속담 교육 분야에서도 이를 고려한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 속담의 단순한 대역 의미 정보만을 전자사전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중 언어의 특수성도 고려한 정보가 전자사전에 탑재된다면 그 효용성이 더욱 커지는 것은 자명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이 점을 반영한 한국어 속담 전자사전 중국어 대역어 기술 방법 연구를 엄밀히 검토하고 발전시켜 실제 자료 구축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속담의 중국어 번역과 정보화 처리는 단순히 학습 도구를 제작하기 위함이 아니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교육의 가치를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속담은 언어교육의

실질적 기능 외에도 그 말 속의 함축성과 완곡성을 이해함으로써 학습자의 판단력과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중국어와 한국어의 번역 과정에서 양국 문화 표현과 문화내포적 의미 차이를 분석하는 것도 언어적, 문화적 가치를 가지며 양국의 이해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속담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고 생각한다. 속담의 의미는 어음이나 어법처럼 고정된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사회의 변천, 사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속담의 중국어 번역에 관한 연구를 계속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 필자를 포함한 많은 학자들이 앞으로 공동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일 것이다.

<참고 문헌>

- 김정숙(1996). “한국어 속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교육한글](한글학회), pp.317-325
- 김현정(2002). [속담을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석사학위 논문.
- 박병선, 진경지, 채런강(2007). “한국어 전자사전 속담 정보 활용을 위하여”,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비교 연구-한국어문학 국제학술 포럼 국제학술대회](고려대학교 BK21 한국어문학 교육연구단)
- 박영순(2002).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문화론], 서울: 한국문화사
- 우인혜(2004).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항목 선정.” [이중언어학](이중언어학회) 25, pp.149-186
- 진경지(2002). [한-중 속담 비교 연구-변용과 와전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논문.
- 진경지, 박병선, 채런강(2007). “韓國諺語的漢語翻譯問題-以韓語教育的資訊處理爲中心” [한국중어중문학회 연합국제학술대회].
- 祝翠瑛(2006). [한국어 관용적 비유표현 교육 연구 -중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한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 최권진(2007). “속담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 17 차 국제학술대회](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367-385
- 홍재성 외(2006). [21 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개발분과 연구보고서], 국립국어원